

중부 농축산물류센터 활용대안 모색을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2016. 1. 8(금)



한상욱(연구위원)

CONTENTS

주제발표 취지 및 목적 01

현황 및 제안사업 주요 내용 02

미래 트렌드 대비 전략적 대응 분야 03

사업 제안 04

결론 및 제안 05

주제발표 취지 및 목적 01

01 주제발표 취지 및 목적

○ 중부 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 요구

- 1999년 준공 이후, 매각, 보조금 반환 등을 추진하며, 현재는 한시적으로 임대운영 중
- 충남도청 및 관계기관은 그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다기관 의견수렴을 진행

○ 제안된 활용대안은 대상부지의 특성 및 제약요인에 대한 검토가 상대적 미흡

- 자본 잠식 및 경제성 하락에 따른 충청남도의 활용대안 제시는 상대적으로 대상부지의 특성 고려가 미흡
- 제안된 활용대안은 각 관계기관의 특성 및 목적에 의거한 활용대안 제시로 객관성·합리성에 취약하다는 단점

○ 거시적 패러다임 변화, 국가 정책 등 다양한 고려요인에 대한 잠재력 검토 요구

- 적정 기능·시설 도입을 위해서는 도유재산으로서의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목적의 기능 설정이 전제되어야 함
- 대상부지가 갖는 입지적 측면, 관련정책동향 등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요구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적 여건 고려 → 사업 추진의 명분성과 정합성 제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고려요인 제공 → 추진방향 설정의 객관성 제고**

현황 및 제안사업 주요 내용 02

02 현황 및 제안 사업 주요내용

2.1 현황

● 설립예산 519억원, 재산가액 668억원(2011년 감정평가)의 창고용도 임대 운영 중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2길 22
- 규모 : 대지 72,518㎡(당초 13,917㎡), 연면적 32,530㎡
- 설립예산 : 519억원(국고 보조금(277억)+충남도와 천안시, 농협, 축협 등(191억) 등 출자)
- 재산가액 : 668억원(11년 감정평가, 토지 457억+건물 217억+설비 14억)

● 도시지역(유통상업지역), 4동의 건축물

- 지역지구(국계법) :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유통업무설비 / 지역지구(학교보건법) : 상대정화구역
- 대지면적 73,204㎡, 연면적 32530.37㎡, 건축물수 4동, 건축면적 18,403.56㎡, 건폐율 25.14%, 용적률 27.81%
-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로 1동(30,420.41㎡), 2동(1,960㎡), 3동(143㎡), 5동(6.96㎡)

● 행위제한내역 : 타용도 건축물 조성시 용도지역 변경 필요

- 국계법 제76조, 시행령 제71조, 별표 11 - 건축불가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별표 11, 27조, 30조
- 학교보건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 공시지가는 지속 하락 추세

- 센터 설립 전후 대폭 상승(9,080원 → 87,700원, 966%)
- 2008년 이후 하락 추세

02 현황 및 제안 사업 주요내용

2.2 주변지역 현황

◉ 주변지역 생산기능 증가에 따른 개발압력 지속 증가 중

- 인근 산업단지 및 공장 근로자 중심으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GS가 연접부지에 중소형 임대주택을 건설 중(건설기간 : 2014.04 ~ 2016.06)

◉ 주변 생활여건은 미흡, 인구 유출 심화

- 기본 교육시설 부족(現 초2, 중0, 예술고1)
- 2014년초 천안시에서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성거읍 일대 78만㎡)이 취소
- 매년 1백여명씩 성거읍의 인구 감소 → 現 2만명 수준 / 22,205명(2011) → 21,847명(2013)

◉ 광역접근성은 양호, 시내구간 통화함에 따른 교통 소통 문제 노출

- 천안 IC : 이동거리 약 5.9km / 자동차로 약 15분 소요
- 북천안 IC : 이동거리 약 5.5km / 자동차로 약 20분 소요
- 천안역(국철1호선) : 이동거리 약 9.3km / 자동차로 약 24분 소요
- 직산역(국철1호선) : 이동거리 약 7.3km / 자동차로 21분 소요

2.3 사업제안 주요내용

- 임대주택공급 : 인근 근로자·대학생·신혼부부, 무주택·취약계층 등을 대상 공급
실제 수요에 따라 임대주택 외 일반분양 병행 검토,
해당부지 내 근생 및 교육시설(중학교·어린이집) 확충하여 지역 정주환경 개선
- 미니 복합타운 조성(정주인원 3천여명 규모) :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 등)·복지(유치원 등) 시설을 확충 +
인근 산단 근로자 등의 정주·고용환경 개선

* 근로자 고용 촉진 및 그 가족의 정주기능을 지원하여 거주민의 유출을 방지

* 상생산단(道 정책사업) 및 행복주택 공급과 연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트&디자인 창작 공작소(Studio) 구축 · 운영 ■ 문화예술 레지던시 및 관광형 캠프장 구축 · 운영 ■ 파크 개념의 문화소비·유통 단지 조성 ■ 대형 이벤트(행사)로서 ‘사이언스 메이크페어 천안’ 개최 ■ 실내외 스튜디오 세트장 조성 및 운영 ■ 지역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트&디자인 체험관 및 아카데미 구축 · 운영 ■ 영상콘텐츠 멀티스튜디오 운영 ■ 문화산업 분야 장비의 상설전시 제공 ■ 〈한국 드라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
---	--

- 소상공인 업종별 공동구매 후 저장 및 물류센터 운영
- 농수축산물 전처리 작업장으로 운영(슈퍼마켓 Shop in shop)

02 현황 및 제안 사업 주요내용

2.4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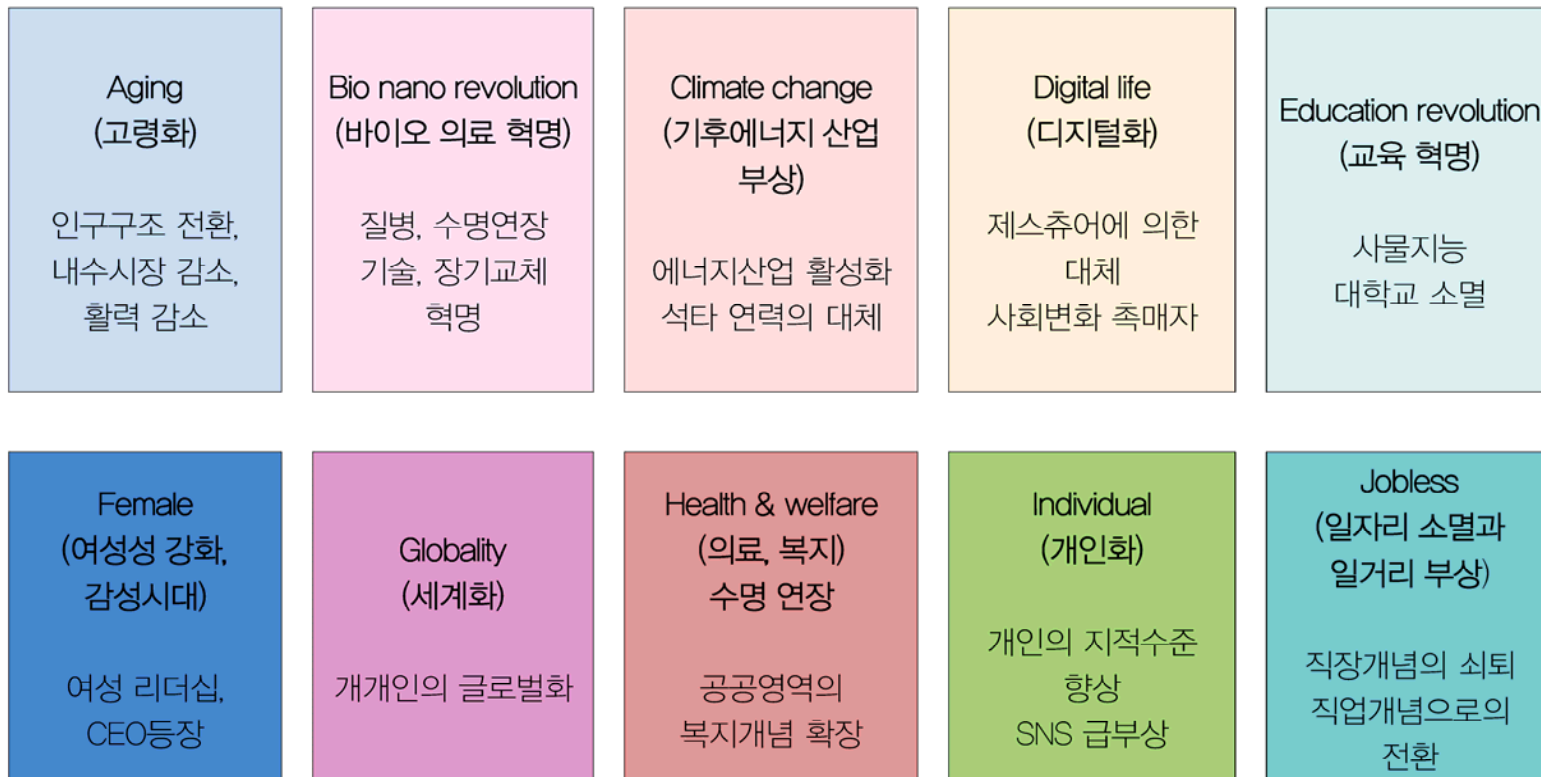
-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조된 기능 부여 요구**
 - 경제성 논리에 의한 민간 매각은 관리처분권 행사 문제는 없음 ↔ 사업 졸속 추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잠재
 - 시행주체가 공공인 경우, 보편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형성 가능성 높음
- **지역발전 기여도 제고를 위해서는 거시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및 적합 기능 설정 필요**
 - 일단의 시설조성후에는 기능·시설의 수정·보완·확장이 어렵다는 점 감안
 - 미래 예측 및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능 설정이 요구
- **충남의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유지 및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확보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 고려, 타지자체와의 차별성 확보, 중앙정부 예산획득이 용이해야함
- **수요, 입지적 타당성 고려한 이용 효율성 제고**
 - 재산가치 하락, 철거후 개발은 재정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수요 및 비용적 압박, 주변 생활환경 미흡 등은 과제로 남음(천안의 시가화 경향은 북부·서부지역 개발 경향)
- **단일 목적 시설공급보다는 다목적 시설공급 및 복합화 유도**
 - 공공시설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
 - 규모성 제고보다는 다목적 시설의 공급·주변지역 연계를 통한 규모성 제고 고려

미래 트렌드 대비 전략적 대응 분야 03

03 미래 트렌드 대비 전략적 대응 분야

3.1 거시적 여건변화

• 10대 메가 트렌드(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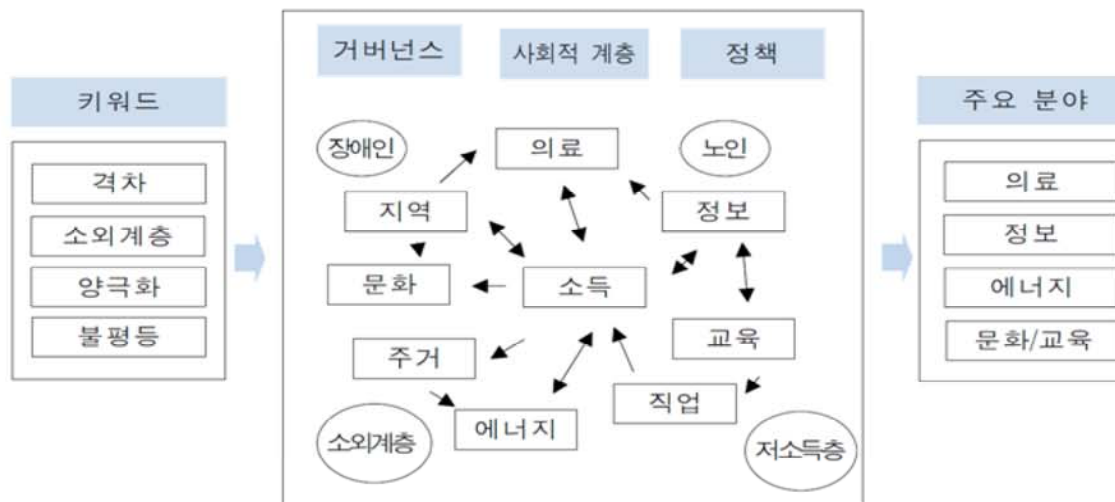
03 미래 트렌드 대비 전략적 대응 분야

3.1 거시적 여건변화

향후 주요 이슈 : 격차, 소외계층, 양극화, 불평등(최창택외 2015)

- 격차 : 지역, 에너지, 정보, 소득, 교육, 주거, 소외계층, 일자리
- 소외계층 : 노인, 중소기업, 장애인, 저소득층, 교육, 에너지, 정보, 문화
- 양극화 : 대기업/중소기업, 부동산, 일자리, 소득, 소비, 교육
- 불평등 : 글로벌, 소득, 정보, 일자리, 부동산, 장애인, 에너지, 교육

10년내 일상생활에 파급효과가 증가할 분야는 의료, 정보, 에너지, 문화·교육



03 미래 트렌드 대비 전략적 대응 분야

3.2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 ◉ **정치 행정분야 : 삶의질에 대한 요구도 지속 증가, 효율성 →효과성 추구로 전환**
 - 대량공급 위주 개발, 대규모 개발 및 공급주도 관리 방식 → 수요맞춤형으로 전환
 - 양적 성장 → 품격 제고, 여가, 문화수요 다양화에 따른 적정 시설의 공급 및 자원활용 요구도 증가
- ◉ **경제 산업분야 : 저성장체제 지속, 거대경제권에 의한 신개발 경쟁체제 가속화**
 - 세계경제 불확실성,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 소비성향 감소, 중국경제의 소비성향 증가
 -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 → 탄소배출권 확보, 녹색산업 육성
- ◉ **사회 문화분야 : 인구 감소시대, 개인주의에 기반한 개방형 사회시스템과 사회통합 가속화**
 - 절대 인구 감소 →인구구조 역삼각화 → 중산층 감소,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개념 변화, 사회안전망 요구 증가
 - 고령화율 가속화 →도시·비도시간 지역 활력도 양극화, 실버산업 수요 증가
 - 대량공급위주의 공공정책 한계, 사회계층의 다양화 → 계층간 문화 인식차 양극화 →유동정보의 양극화 →기존 전통사회 가치관의 붕괴 위기 →공간적 문화적 지역적 편중 → 사회적 약자 수요 확대 및 비용 지출 확대
- ◉ **기술 환경분야 : 과학기술 융복합화, 생활전반의 영향력 가시화**
 - 창의적 상상력 기반 뉴미디어 아트 전개 → 예술분야 융복합화 → 생활문화관광 패러다임 변화 → 공공정책 차별화
 - 미래 성공요인에 대한 변화 →전문성의 확대 → 학제적 학습능력 확대, 중장기적 경험과 신뢰

03 미래 트렌드 대비 전략적 대응 분야

3.3 충청남도의 전략적 대응 분야 설정

●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공공성에 기반

구분	도구적 공공성	윤리적 공공성	담화적 공공성	구조적 공공성
초점	국가(공공부문)	국가(공공부문)	공론영역(시민사회)	사회구조
내용	도구적 차원	도덕적 차원	구성적 차원	구조적 차원
행정이론	기본권 보장	사회경제권 보장	참여·토론 활성화	착취구조의 폐지
평가분야	인권, 재산권	교육, 복지, 의료보건	언론, 인터넷, 시민사회	불평등
연관성		○		

주) 임의영(2010),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2호,p18,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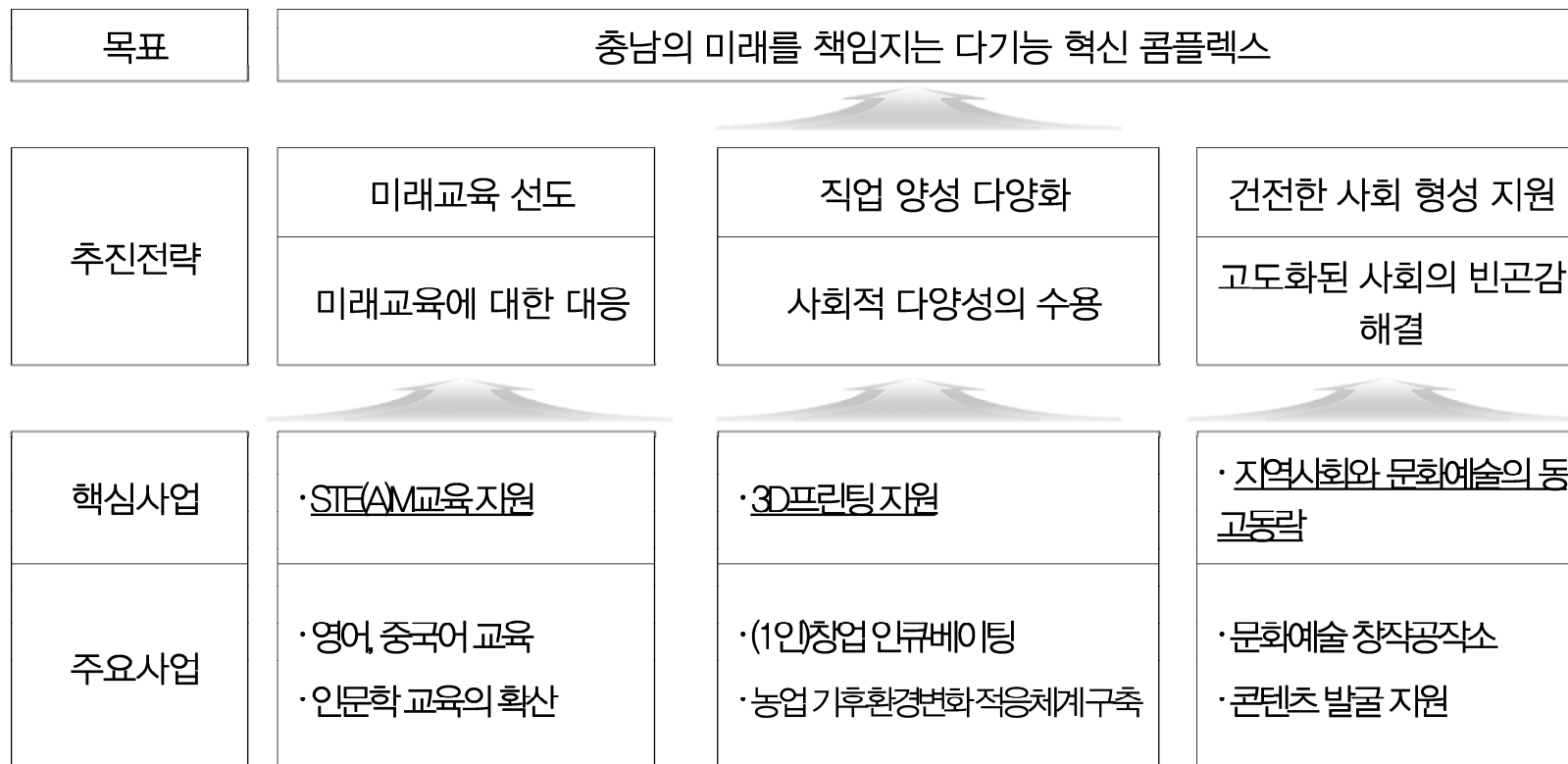


사업 제안 04



04 사업 제안

4.1 목표 및 추진전략



04 사업 제안

4.2 사업제안

◉ STE(A)M교육 서비스 거점 구축 · 운영

배경 및 목적

- 교육기관 중심의 창의융합교육시행하더라도, 장기간 및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육적 공급 균등노력 필요
- 단순교육 + 직업교육 + 문화예술분야 접목한 통합적 교육 요구
- 관련기관의 협업체체 구축 및 운영이 효율적 추진의 관건

기본 방향

- STEAM 교육 기회의 평등화(경제적 빈곤층, 사회적약자, 교육적 소외자에 대한 고려)
- 교육과 연관된 기능(산업계)와의 협업체체 구축 운영(현장학습, 첨단산업 분야 기관 협조)
- 총괄지원할수 있는 기능의 설정 및 사업 발굴

주요 사업 (안)

- 다기관 협업체체 구축(창의융합문화교육총괄지원위원회 및 재단 설립)
 - 교육부 중심 탈피 + 교육기관 기자재 활용의 효율성 제고, 협업시스템 구축 운영
- STEAM 저변확대를 위한 독서문화 캠페인 및 도서보급
- 창의성 유발을 위한 교육소외지역 · 사각지대의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직업훈련 교육과 연계한 미래예측 코스 및 방학기간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직업다양성 추진을 위한 교육매체의 발굴 · 보급 및 관련분야 집적 교육

주) 관련분야 사례는 부록 참고

04 사업 제안

4.2 사업제안

3D 프린팅 교육 허브 구축

배경 및 목적

- 3D 프린팅은 전통 제품생산방식 변화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 변화 촉진 중요기술
- 산업분야 활용 및 맞춤형 생산 증가 전망
- 아직 초기 단계이고, 높은 성장률 기대(자동차, 의료, 패션, 항공우주, 건축, 엔터테인먼트 등)

기본 방향

- 3D 프린팅 활용 보편화를 위한 고가격으로 인한 접근성 해소
- 3D 프린터 제품의 품질보증 해결(산업화를 위한 품질 보증)
- 지적 재산권의 해결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교육이나 디자인 도구의 개발 및 지원(관련 교육 80-100% 국비 지원)

주요 사업 (안)

- 한국과학창의재단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컨설팅에 대한 수요 및 적응체제 구축
- 시군별 3D프린터 설치 지원 및 다분야 통합교육(창업아이디어 특성화 프로그램, 인적자원개발, 문화산업 진흥 등)
- 지적재산권 해결 및 제품 품질보증제도 도입 운영
 - 랩형태의 아이디어 제안 풀, 클라우딩 시스템, 특허 및 실용신안 관리, 시제품 컨설팅 등
- 교육자 육성 및 교육생별 특성화 교육(기초지식 수준 탈피)
- 3D프린팅 관련 융합산업 발굴, 산업체 연결망 확보 및 홍보

주) 관련분야 사례는 부록 참고

04 사업 제안

4.2 사업제안

●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인의 동고동락

배경 및 목적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책 강구 예정
-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전개나 처우개선 부각
- 지자체에서는 레지던시 비롯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한계

기본 방향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관련법 통합 추진기반 마련(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
- 문화예술교유 분야외에 타분야와의 융합에 따른 스펙트럼 확대에 적극 대응
- 스마트한 기부문화 확산과 관리로 관련주체간의 매개 및 전달 서비스 최적화

주요 사업 (안)

- 가칭) 충청남도 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 문화재단 시행
- 지역사회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적극적 참여
 - 지역사회 현안문제, 자원발굴, 지역개발 등 참여
- 스마트 기부문화 정착 및 투자로의 전환
 - 젊은 층의 기부참여자 확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 자금력 부족 예술단체, 창작자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링 방식의 모금 방식 전개, 협동조합 운영
- 신진 문화예술인 지원 및 문화 전문인력 양성

주) 관련분야 사례는 부록 참고

결론 및 제안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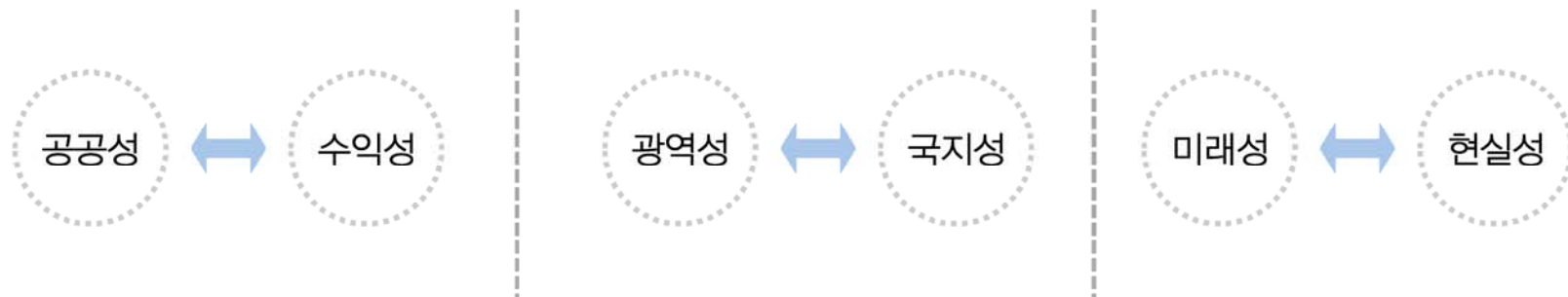
05 결론 및 제안

◦ [주요쟁점] 다기간 소요, 사회적 인식·공감대 형성에 한계, 정책적 신뢰성 고려

- [시간·절차적 측면] 활용 대안 모색·방향 정립, 관련사업 절차 이행에 다기간 소요 예상
- [사회적 공감대 형성 측면] 계층적·지역적으로 일부에 국한된 사업 추진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 노정 예상
- [정책적 신뢰성 측면] 정책 방향 미설정상황에서 각 주체별 사업제시 등 사업적 접근으로는 도정방향과의 정합성 오류 발생 잔재

◦ [접근방향] 적합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

- [적합성] 정책적 부합성, 사회적 합의성, 입지 적합성
- [실현가능성] 추진기반 구축, 효율성, 집행성, 자원조달 가능성
- [효과성] 수익성, 민감성, 광역성, 미래성
- [추진체계 효율성] 운영체계의 효율성, 사업시행 역량





감사합니다

〈부록 1〉 사업제안

1) STE(A)M¹⁾교육 서비스 거점 구축·운영

(1) 배경 및 목적

- 창의융합교육의 추진을 위해서는 교유기관 중심의 활동이 추진되더라도 장기간 소요 및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육적 공급의 균등화 노력 필요
- 단순교육과 더불어 직업교육, 문화·예술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통합적 교육시스템 필요
- 효율적·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기관간의 협업체제 구축 및 운영이 절실

(2) 현황 및 여건

- 과학기술 융합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중심으로 운영 중이고 STEAM교육협회²⁾활동 중³⁾
 - 제2차 과학기술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에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초·중·등 수학과 과학 교육강화 과제
 - * 주요내용 : 주입식 암기식 학습내용의 축소→첨단과학, 생활속 기술에 예술적 수업 기법 적용 체험탐구실험위주로 개발 보급 / STEAM 교사에 대한 단계별 맞춤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기관과 자원을 활용 과학기술교육 실현
 - SEA중 충청남도는 천안장영실로봇, 아산2-로봇플레이의 2개소가 전문기관에 운영 중임
- 과학기술융합에 의한 유망직업의 확대
 - 교재에서 제시한 전문가는 아래와 같으며, 이후 지속 확대 예상
 - * 정보보안 전문가, 게임라이터, IoT전문가, 소환현실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디스플레이개발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소셜미디어프로듀서, 클라우드컴퓨팅 전문가, 녹색에너지전문가, 연료전지전문가 등
-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파급효과가 국한될 소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실천은 답보상태
 - KISTEP에서 제시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STEAM은 미국의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에 Arts를 추가함

2) SEA : STEAM Education Association, 민간교육단체

3)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부처에서 STEM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재단,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주요 추진부처로 총 예산의 약80%이상을 차지(KISTEP(2012), 미국, STEM교육 추진, p3)

과제	필요성	추진내용
융합인재의 유형별, 영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의 포괄화 경향 세분화된 정의 필요 융합인재의 유형별, 영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합인재 유형별 양성 정책의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식가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강화 융합활용 인재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 강화 융합참여인재의 참여기회 다각적 제공 융합영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과 미술 융합, 과학과 음악융합, 기술과 미술융합, 기술과 음악 융합 융합교육의 적정시기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숙련을 요하는 분야, 전문지식 습득을 요하는 분야, 경험적·사고적 숙련을 요하는 분야
박식가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융합인재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다양한 분야에서 박식(polymathy)한 경향 박식가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연극·드라마·인형극·사진 등 융합매체를 통한 교육' 강화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전문가들의 수업 참여' 지원 과학고에 '예술사', 예술고에 '과학사' 과목 확대 추진 대학원 과정에 '과학사', '음악사', '미술사' 과목의 필수화 유도
융합인재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융합인재는 타 분야 기본원리와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소유 창의적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사고기법' 훈련과정 신설 초중등교육과정에 '창조가 탐구' 과목 신설 고등학교 과정에 '미래예측' 과목 신설 교대와 사범대에 '창의적 사고기법' 과목 필수화 장려 대학과정에 '창의적 석사과정' 개설 지원
창의성 유발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 유발문화(Creativogenic Culture)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요소 특정시기, 특정장소의 문화는 창의적 인재를 배양하는 결정적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지하철, 인터넷, 옥외광고 등 각종 매체에 '창조국가 캠페인' 전개 초중등 교육과정에 '독서운동' 강화 및 '중고서적 판매 및 재 활용 캠페인' 민간부문 비영리 전문기관의 활성화 유도 (가칭) 창의융합문화교육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주) 김왕동(2011),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 과학기술과 예술융합, STEPI insight, p18-24 정리.

(3) 기본방향

- 충청남도가 추진해야할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STE(A)M 교육기회의 평등화를 고려
 - 한국의 STEAM 교육정책은 교육부 중심의 정책으로 경제적 빈곤층, 사회적 약자, 교육적 소외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
 - * 미국의 STEM 교육은 경제적 빈곤층, 흑인, 스페인계, 라틴계 등을 위해 10억 85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⁴⁾하는 등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
- 둘째, 교육과 연관된 기능(산업계)과의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 교육생 입장에서는 지붕아래 강의실의 폐쇄적 분위기 보다는 관련 기관의 현장학

4) 김민천(2013), 미국의 STEM교육 정책과 한국의 STEAM 교육 정책의 비교,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p71.

습, 첨단 산업 분야의 기관들간의 도움

- 셋째, 교육부 관련하여 총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의 설정 및 사업발굴이 요구됨
 - 교육부 관련 예산의 집행은 일련의 목적을 위해서 예산의 사용과 감독을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지역차원에서는 그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기능적으로 중첩되지 않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의 설정 및 사업 발굴이 요구됨

(4) 사업내역

- 다기관간의 협업체제 구축(가칭 창의융합문화교육총괄지원위원회)
 -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은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교육부와 관련된 교육기관은 권한과 책임에 의거한 폐쇄성 극복에 장기간 소요
 - 교육기관의 관련 기자재를 활용을 통한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주체간의 협업시스템 및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
 - * 영국 국가창의문화교육자문위원회(NACCCE :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 운영
- 민간부문의 창의교육을 활성화 및 가칭)창의융합문화교육총괄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 설립 운영
 - 공공부문만의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재단 설립 및 비영리전문기관 참여 유도
 - *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 중심으로 교육기부 활성화 진행중
 - * 미국 창의교육재단(CEF :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 STE(A)M 저변확대를 위한 독서 문화 캠페인 및 도서 보급(관련 총괄 기능은 대상지에 입지)
 - 충청남도의 공공도서관에 STEAM 전문 도서 보급 및 코너 별도 배치
 - 민간의 저렴한 도서구입 장려 및 캠페인 전개
 - * 미국 지역도서관은 야드세일을 통해 서적 판매재활용 문화 정착
- 창의성 유발을 위한 교육소외지역·사각지대의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기존 방과후 학교 등의 정규교육 외의 사회복지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TE(A)M 교육 활성화

- 직업훈련 교육과 연계한 미래예측 코스 및 방학기간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멘토-멘티제 운영)
 - 직업의 개념 변화, 목표연도 설정에 따른 미래모습, 유망직업, 요구 역량 등에 대한 교육
 - 교육을 위한 교육자 발굴·육성(사범대, 교육대, 과학기술(고)대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창의적 사고기법에 대한 커리큘럼 발굴 운영 및 방학기 집중 교육
 - * 창의적 사고기법은 13가지 생각도구, 브레인스토밍법, 유추법, SCAMPER법 등 다양
- 직업다양성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매체의 발굴·보급 및 관련 분야 집적 교육
 - 지역의 문화예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순수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의 접목 및 관심 유도를 위한 교육매체 보급(광고, 연극, 드라마, 인형극, 사진 등)
 - 대학기관을 활용한 관련 분야 전문가 집적 교육(건축, 음악, 디자인 등) 및 파트너십 운영
 - * 영국미국 드라마를 통한 교육 : 드라마, 인형극, 사진 등
 - * 영국 CP(Creative partnership) project : 과학자, 건축가, 음악가, 디자이너 등 각분야 전문가 집적 교실 운영

2) 3D 프린팅 교육 허브 구축

(1) 배경 및 목적

- 미래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 기술로서 3D 프린터를 꼽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제품 생산방식의 대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함⁵⁾
- 3D프린터의 기술 발달에 따라 활용가능성 증대에 따라 기업의 시제품 제작, 산업분야의 제품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3D 스캐너와 CAD 프로그램의 고도화로 개인 취향이나 욕구를 반영한 제품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대량생산 방식과 다른 맞춤형 생산이 증가할 전망⁶⁾
 - 기존의 시제품 제작방식은 다단계를 거쳐야하지만, 3D프린터 이용시 설계도면에 의해서 제작이 가능함에 따라 시간·경제적 비용 단축
 - * 예) 자동차 시제품(아반타도르) : 기존 4개월, 4만 달러 → 20일, 3,000달러
- 3D프린트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높은 성장률 기대하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3D프린터 산업 육성을 계획
 - 자동차, 의료, 패션, 항공우주, 건축, 엔터테인먼트, 가전 등 다양

(2) 현황 및 여건

- 일반프린터의 시장은 1,500억 달러(2010)로 예상하고, 3D프린터의 시장규모는 1%규모로 미미하지만, 연평균 20% 수준의 높은 성장률 전망
 - 시장규모 11억 달러(2009) → 17억 달러(2011) → 65억달러(2019) 예측(Wohlers Associate, 2012)
 - 미국의 글로벌 시장 70%이상 점유(Stratasys 53%, 3D Systems 22%)
- 다양한 파급효과 대비 실생활과 연관된 활용범위는 지속 증가 예상
 - 생활용품, 피규어·미니어처등의 장난감, 시제품 제작, 교육용 자료, 예술 조형 작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3D프린터를 3차원의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체형태의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액체기반형, 분말 기반형, 고체 기반형으로 크게 구분함

- 액체기반형은 레이저나 강한 자외선을 이용하여 재료를 순간적으로 경화시켜 형상을 제작(미국 3D Systems의 SLA 시스템)

- 분말 기반형은 분말형태의 재료를 가열한 후 결합하여 조형, 재료 형태에 따라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레이저를 사용(미국 3D Systems의 SLS 시스템, 독일 EOS의 SLS 시스템)

- 고체기반형은 와이어또는 필라멘트 형태, 왁스 성질을 가진 패렛, 얇은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 형태의 자료를 활용한 형태(미국 Stratasys의 FDM 시스템, 이스라엘의 Objet사의 Polyjet 시스템, 미국 Helisys사의 LOM 시스템)

6) 김홍태(2013), KB daily 지식 비타민 : 3D 프린터 시장 현황과 파급효과, p3

업, 각종 기계 및 총기 부품, 초콜릿쿠키 반죽 등의 음식, 의료 연구용 모형, 생체 조직 등

- 이러한 3D프린터의 보급 및 대중화에 관련해서는 오픈소스에 기반한 렘랩(RepRap)⁷⁾ 프로젝트 영향이 큼

-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3D 프린터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3D프린터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중요기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무한상상실(www.ideaall.net) 운영사업⁸⁾이고, 실험·공방형, 스토리텔링형, 아이디어클럽형의 프로그램 운영중임

- 미래창조과학부 : 무한상상실 - 과학관을 중심으로 제작공방, 스토리텔링클럽, 아이디어클럽 등을 운영하는 무한상상실 설치·운영
- 교육부 : 학교내 무한상상실 - 학교 교과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능한 학교내 무한상상실 운영 (다빈치 프로젝트, 미래부 협업)
- 문화체육관광부 : 무한상상실 - 공공 도서관에 디지털콘텐츠 제작시설 설치, 커뮤니티활동·교육 등이 제공되는 무한상상실 설치·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 창조공작 플라자 - 청소년들이 기술실습·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아이디어를 직접 제품화 할 수 있는 창조공작플라자 설치·운영
- 특허청 : IP창조Zone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내에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의 교육·실현을 위한 IP 창조 Zone 설치·운영
- 우정사업본부 : 무한상상실(이야기우체통) - 우체국 시설에 스토리텔링형 모델을 기본으로 운영하는 무한상상실 설치·운영
- 충청남도는 당진도서관, 우정공무원교육원, 청운문화재단, 호서대학교에서 운영중

- 중앙부처의 관련사업은 기관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성과물 활용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한국과학창의재단(2015))⁹⁾
 - 거점기관과 소규모기관, 지역의 대학 및 출연(연), 문화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

7) 렘랩은 신속한 프로토타입 복제기(Replicating Rapid Prototyper)의 약자. '누구나 3D 프린터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아드리안 보이어(Adrian Bowyer)라는 영국의 기계공학 교수에 의해 2005년부터 시작됨

8) 무한상상실 :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국민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하거나 UCC제작·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MIT 미디어랩의 Fab LAB, 미국의 Tech shop, 영국 스토리텔링 협회)(한국과학창의재단(2015), 2015년 무한상상실 사업설명, p2)

9) 한국과학창의재단(2015), 2015년 무한상상실 사업설명, p3

- '14년 총 2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독창적인 프로그램 기획, 기존 문화사업 콘텐츠와의 연계 등에 한계
- 무한상상실을 통해 제작된 창작물 및 시제품이 연 3,000 건에 이르나, 전시 및 상품화 등의 활용이 부족

(3) 기본방향

- 3D 프린팅을 활용 보편화를 위한 고가격으로 인한 접근성 해소
 - 일반 주민이나 예비 창업자가 접근하려고 하더라도, 현재 3D프린터가관련 산업이 초기 단계로 3D프린터의 고가격, 이용소재의 고비용으로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 3D프린터 제품의 품질보증 해결
 - 고가 3D프린터 사용 제품 대비 저가 3D 프린터 제품의 품질 하락 및 산업화를 위한 품질 보증제도의 필요
- 지적재산권의 해결
 - 디자인분야는 창의성과 독창성에 근거한 지적재산권이 중요하지만, 3D프린터는 오픈소스에 의해 구현되는 바,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준과 관리방안이 요구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교육이나 디자인 도구의 개발 및 지원
 - 현재는 3D프린터 관련 교육이 80~100% 국비로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AD등의 훈련이 필요하고, 이는 실제 제품을 제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4) 사업 내역

- 한국과학창의재단 등과 연계한 협력체제의 구축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시행하는 운영프로그램, 교육, 컨설팅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수요 파악 및 적응 체제 구축
 - * 특히, 운영자 교육의 경우 ICT기반 코딩 프로그램, IOT의 특성·확장성 등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한 메이커 관련 실무 운영자 교육 총괄 실시예정인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제공 및 대응
- 시군별 3D프린터 설치 지원 및 다분야 통합교육기능 추진
 - 시군별 3D 프린터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현재 고가의 3D 프린터, 재료의 고가로 인하여 일반 주민 및 창업희망자가 접근성이 떨어지

고 있는 바, 이에 대한 3D프린터의 기계 지원

- 창업아이디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호서대학교 프로그램 운영과의 연계·보완 또는 추가)
- 인적자원개발 측면, 문화산업진흥 측면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 교육 시행

* 전국 무한상상실은 전체 41개소, 거점형 13개소, 28개소 운영 중(2015. 6 현재)

* 충남의 거점형은 호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부품 및 로봇제작, 시제품제작, 스마트 앱 창작, 창업아이디어 클럽형 모델)으로 추진

* 타 지자체는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3D프린터를 활용

* 강원도 산경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위해 마케팅지원, 창업지원, R&D과제 기획 지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프랜차이즈 육성을 하고 있으며, 이중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 3D구현실을 운영 중

* 부산은 부산인적자원개발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창의교육 콘텐츠 스토리텔링 퍼실리테이터 양성, 나의 창조 DNA찾기, 위메이크 상상실험 프로젝트, 평생학습 상상영화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스마트 IoT 실험공방, 로봇키트 실험공방, 스토리텔링 창작 클럽, 아이디어 클럽을 운영 중

* 강원도 농산물원종장은 귀농귀촌아카데미, 농업기술 발명교실, 3D프린터로 실현하는 농업 무한상상도우미,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공충 채집, 사육도구 공작 교실을 운영중이며, 이중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시제품제작, 활용평가사업을 운영 중

- 지적재산권 해결 및 제품 품질보증제도 도입 운영

-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렘랩형태의 아이디어 제안 풀 및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운영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관리방안 마련 및 관리
- 시제품에 대한 컨설팅, 인큐베이팅 및 산업체 연결

- 3D프린터 관련 분야 교육자 육성 및 교육생별 특성화 교육

- 일반인의 교육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CAD 기본 교육 이수 및 아이디어 접목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전문 요원 배치 및 교육(1대1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 수요에 의한 교육 커리큘럼의 다양한 발굴 및 교육생 집체 교육, 수준별 밀착 교육 시행

* 현재의 국비 지원하의 교육은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8-10주간의 교육을 시행하지만, 기초지식에 해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3D프린팅 관련 융합산업 발굴, 산업체 연결망 확보 및 홍보

- 시제품에 대한 다분야 컨설팅 및 전시회 개최
- 다분야의 3D프린팅 관련 융합산업의 발굴 및 산업체와의 연계로 지식산업을 선도

3)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인의 동고동락

(1) 배경 및 목적

- 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 예정(법9조)
 - 문화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와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 삶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질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가능
-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편, 전문 예술인에 대한 복지제고차원의 “예술인 복지법” 시행되고 있지만, 전문 예술인들이 창작활동 전개나 처우개선 등의 과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그 실태 조사와 정책방안 강구도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레지던시¹⁰⁾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을 영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지 않고 떠나는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이 어려운 상황임

(2) 현황 및 여건

- 레지던시와 관련되어 창작스튜디오¹¹⁾, 창작레지던시 창작실, 창작레지던시, 창작실, 창작공간, 작업실, 예술촌, 예술마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실제 2013년 국내 창작스튜디오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재 124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 중 레지던시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5개임
 - * NEO-PRIME ARTIST 레지던시(서울 논현동), 더하기센터2F-아시아예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광주 남산동), 대담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전남 담양읍), 장월미술관레지던시 ‘예술인사랑방’ (전남 함평군), 도화헌 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전남 고흥군) 등
- 이러한 레지던시는 크게 장소 및 재정지원형, 작품제작 중심형, 융합-교류

10) 레지던시 : 공공 예술지원정책 하나로 예술가에게 작업공간이나 창작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여 예술가 자신의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창조력 제고를 높여나가 예술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전병태(2013),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레지던시 공간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11) 레지던스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으며, 창작스튜디오는 학문적이나 제도적으로 정착된 개념은 아니지만, 작가들에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숙사를 겸비한 아카데미이며, 작가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김연진(2013), 창작스튜디오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형, 지역네트워크형으로 유형 구분하고, 운영 프로그램은 예술가활동지원프로그램, 국내외 교류프로그램, 지역연계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복합예술문화창조 프로그램으로 나뉜

〈표〉 레지던시 유형

구분	내용	접목가능성
장소 및 재정 지원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작업에 대한 대가로 임금형태 등으로 재정 지원하는 형태 • 재정적으로 열악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 등에게 안정적 창작환경 제공 목적 	
작품 제작 중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또는 공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기본적인 레지던시 운영프로그램으로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가들에게 작업실 제공하여 안정적 창작환경 지원 	
융합-교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최근 예술이 복합/융합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협업을 통한 무한 시너지 발현 시도 	○
지역네트워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가 지역예술 및 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예술을 접할 기회 제공 • 최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많은 창작스튜디오들이 지향하고 있는 형태임 	○

〈표〉 주요 운영 프로그램

구분	내용	접목가능성
예술가활동지원 프로그램	창작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공간 및 비용제공, 예술가교육 세미나, 기획자와의 만남, 공개 프리젠테이션, 공연, 창작발표기회 제공 등 	
	경력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예술가 프로그램, 개인 독립예술가 프로그램, 예술가 회의(워크샵), 컨설턴트, 개인예술가를 위한 정보의 출판 등 	
국내외 교류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상호)교환, 예술가초청, 예술가투어, 지원예술가 선발, 장학금 지원 등 	○
지역연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 연계프로그램, 지역축제 연계 프로그램, 주변 시설 연계 프로그램, 지역문화 환경 개선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및 학생 대상 프로그램, 학교 및 사회복지 시설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 레지던시 개방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술체험, 캠프프로그램 진행 	○
복합예술문화 창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과학, 예술-비즈니스 포럼 등 복합, 연계 프로그램 	○

- 문화예술을 접목시키고자 지방주도의 레지던시(창작스튜디오)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숙소와 거주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50%임
 - 우리나라에서 운영형태는 정부주도 2.1%, 지방주도 38.5%, 법인 16.7%, 민간단체 17.7%, 기업 4.2%, 개인 20.8%
- 생활문화예술과 참여형 예술의 확산 및 접목으로 주민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활동하는 추세
 - 지역에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를 주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 지역 재생 프로젝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

적으로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 해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양혜원·김혜인(2012)¹²⁾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재생(지역재생)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진흥측면의 사업단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서 문화·예술생태계 마련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의 경우 지역역량강화, 공동체 역량강화, 공동체성 증진이라는 목표아래, 문화예술인을 영입하여 지역공동체화의 연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종료 후에는 레지던시 운영이 현실상 어렵고,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3) 기본방향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관련 법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수요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와 지원범위, 재정, 추진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
- 문화예술고유 분야외에 타 분야와의 융합에 따른 스펙트럼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예술과 복지의 결합, 세대별 다층화 및 중장년층의 문화여가소비 증가, SNS와의 결합 등
- 스마트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관리로 관련 주체간의 매개 및 전달서비스 최적화
 - 특권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이 아닌 생활문화로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생산자 = 문화예술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는 풍토 마련

12) '바벨 디스크스 프로젝트'와 같은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상화와 함께하는 골목주민 다다 프로젝트', '장흥 오~라이 프로젝트', '마을이야기학교' 등과 같이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삶과 사회적 환경, 이슈들을 주제로 능동적으로 예술에 참여하는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이 '지역문화공동체의 문화예술생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양혜원·김혜인(2012))

(4) 세부 사업 내역

- 충청남도 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 *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상 생활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문화시서 확충 및 지원, 생애주기별 생활문화활동 지원, 문화예술 치유형 복합센터 구축, 문화나눔 확대 및 문화 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 문화야당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문화형성
 - * 예술과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의 재창조를 위해서 주민참여형주민주체형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문화예술지원 밀집지역의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문화예술을 통한 일상공간의 재생 및 활성화, 예술과 문화를 통한 지역마케팅 활성화
 -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일부 거점시설 및 지원을 위해서는 레지던시 운영을 통한 지원도 가능
 - * 대구 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
 - * 현대미술관 레지던시 운영 규정 참고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향수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대구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대구예술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대구예술발전소(이하 “예술발전소” 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31-12에 두며 전시실, 예술정보실, 수창홀, 세미나실, 창작작업실, 수창고 등의 시설을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발전소 내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주”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수익허가”란 창작작업실을 제외한 예술발전소를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요사업) 예술발전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
2. 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창작 문화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5. 예술발전소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운영
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예술발전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예술발전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① 예술발전소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10:00~19:00
2. 동절기(11월~다음년도 3월) : 10:00~18: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술발전소의 운영을 위해 조정·심의·자문 및 창작작업실의 입주자 선정 등을 위한 대구예술발전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대구예술발전소 입주자선정 심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대관허가) ① 예술발전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대관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시 또는 공연 계획서 등을 기재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관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술발전소의 관리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대관허가 범위) 예술발전소의 시설 중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수창홀, 세미나실, 회의실, 교육실 등
2. 부속시설 : 냉·난방설비 등
제10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료의 납부) 제8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별표 1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제18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전액면제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창의성, 실험성 등 예술성이 있는 행사 : 전액면제
3. 시 또는 수탁자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감액

② 납부 받은 대관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대관료 전부를 대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예술발전소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할 수 없는 경우
-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한다.

1. 대관 사용일 개시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뺀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대관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2. 대관 사용일 개시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관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뺀 나머지를 반환한다.

제13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공연 등을 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발전소 시설 등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관람료) ① 제8조에 의한 대관자가 전시·공연 등을 하는 경우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는 관람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람권의 발행 및 매표·수표관리, 관람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창작작업실 입주허가) ①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주를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냉·난방비 등 제세공과금)는 입주한 자가 부담한다.

④ 시장은 제3항 단서 규정 중 냉난방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⑤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의 선정과 입주허가 취소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작품의 취득 및 관리) ① 시장은 예술발전소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기증자에게 수령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발전소 소유 작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예술발전소 내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예술발전소의 효율적 운영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발전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예술발전소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관람자와 시설사용자 등이 예술발전소의 전시품 및 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대미술관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정 2004. 6. 18. 예규 제 46호
일부개정 2008. 6. 3. 예규 제 77호
개정 2010. 4. 27. 예규 제 106호
개정 2006. 4. 13. 예규 제 66호
개정 2010. 1. 14. 예규 제 95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에서 구축하고,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주 기간)

레지던시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입주 기간 중의 활동 성과, 프로그램 참여도, 향후 프로그램 기여 가능성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1. 장기 입주: 12개월
2. 단기 입주: 6개월 이하
3.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운영 시간)

레지던시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레지던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 미술관 개관일정에 준하여 운영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운영 프로그램)

레지던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오픈 스튜디오 개최
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
5. 도록 등 출판물 발간
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입주 프로그램 운영
8.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9. 평론가, 기획자, 타 장르 관계자 초청 프로그램 운영
10. 레지던시 출신 작가 지원 프로그램
11. 기타 레지던시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입주 자격)

레지던시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레지던시 입주 경력이 없는 국내외 미술작가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
2. 레지던시 입주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로 추천을 통해 선정된 자
3. 레지던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초청받은 작가 혹은 작가 이외의 평론가, 기획자, 타 장르 관계자로 초청받은 자
4. 미술관의 전시, 수집, 영구설치 등의 목적을 위해 작품제작 또는 기증을 의뢰받은 작가

제6조(레지던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레지던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레지던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입주자 선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3호, 제4호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레지던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미술계 주요인사를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

관장은 매년 당해연도의 입주자 선정 계획 등을 포함한 레지던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공모 및 추천 입주자의 선정

제8조(입주자 선정방식)

제5조 제1호, 제2호의 입주자는 공모 및 추천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신청 공고)

제5조 제1호에 의거한 입주자 선발 시 관장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모 입주자 심사위원회 구성)

① 공모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 예비심사위원회(이하 "예비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위원회는 관장이 학예연구직 직원 및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 담당자 중에서 5인 이내로 지정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1. 관장
2.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장
3. 학예연구팀장
4. 미술계 주요인사 4인

제11조(공모 입주자 선정 방법)

① 공모 입주자 선발심사는 예비 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예비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종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한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추천 입주자 추천위원 위촉)

① 제5조 제2호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은 미술계 주요인사 5인 이내로 관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추천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3조(추천 입주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추천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제10조 제3항과 같다.

제14조(추천 입주자 선정 방법)

① 추천 입주자 심사는 서류심사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추천 입주자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입주신청 서류)

레지던시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술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모신청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신청서 1부 - 소정양식(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없음
3. 작품소개 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슬라이드 등)
4.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1부
5.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6. 국내외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7.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

② 추천입주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 1부
2. 제1항의 2호~7호

제3장 입주자의 레지던시 사용 등

제16조(입주 절차)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자는 레지던시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관장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7조(이용 의무)

① 입주자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술관에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은 입주자의 매월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에 입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각종 사고 예방)

① 미술관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② 입주자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 부담)

레지던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은 미술관에서 부담하고, 기타 이용료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미술관과 입주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입주자 지원 관리)

① 관장은 제5조 제1호, 제2호의 입주자가 연간 3분의 1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고 자진 퇴실하거나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레지던시 입주자로서의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레지던시 입주자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개인 작업실 개방)

미술관은 레지던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관계 인사 등에게 레지던시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제22조(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레지던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레지던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타 작가 등에게 개인 작업실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함께 숙박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입주자는 레지던시 내의 제반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미술관이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난방 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 할 때에는 사전에 미술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6. 입주자는 레지던시에서 기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7. 입주자의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퇴실)

① 입주자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입주자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22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 등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당해 입주자를 선발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입주자의 조기 퇴실 등의 이유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 차 순위 예비선정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시설 개선 등 미술관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전시실 사용)

① 입주자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기획안(별지 제2호서식)을 미술관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 후 전시를 개최하며, 전시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미술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2004.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시행한다.

- 지역사회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적극적 참여
 -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또는 지역 자원발굴, 지역개발 등 참여
 - * 스페이스 빔의 '배다리도시학교' '골목이야기 발굴' 등
 - 지역주민이 레지던시 운영자로 참여(레지던시 공동주주형태로 운영, 교육, 캠프 등 장기적 참여 유도)

- 스마트 기부문화 정착 및 투자로의 전환
 - 젊은 층의 기부참여자 확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 * 소셜 100원의 기적, 해피빈, 기부천사, 기부톡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 문화 확산 중
 - * 영국 문화매체체육부는 모바일을 통한 문화예술기부 플랫폼을 구축운영
 - 자금력이 부족한 예술단체나 창작자들의 지원을 위한 클라우딩 방식의 모금 방식 전개(핀테크 활용한 플랫폼 구축운영)
 - * 최근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투자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방식은 P2P금융 클라우드 펀딩 투자 플랫폼으로 전환 중
 - 지역사회, 문화예술인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운영·관리

- 신진 문화예술인 지원 및 문화 전문인력 양성¹³⁾
 -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주민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같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여건 제공과 각종 지원책 마련
 -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13) 한상우(2014), 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의 의의와 경남도의 과제, 경남발전 제133호,p87.

〈부록 2〉 검토 틀 설정 및 제안사업별 검토

구분		착안사항	비고
적합성	정책적 부합성	• 충청남도 정책방향과의 부합 여부	
	사회적 합의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공감대 형성 여부	
	입지 적합성	• 관련 규제 저촉여부 • 접근성 및 접근성 향상 가능성	
실행가능성	추진기반구축	• 시장수요 및 사업추진기반 구비 여부	
	효율성	• 국비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구비여부 및 복잡 여부	
	집행성	• 집중적 투자를 위한 예산확보 및 투자 여부	
	재원조달가능성	• 사업비의 산정 근거 구체성 여부 • 사업비의 추가 조달 가능성 여부	
효과성	수익성	• 수익창출방안의 구체성 여부 • 이용객 및 수요의 충분성 여부 • 지역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여부 • 비용편익 분석(민감도, 재무성 분석)	
	민감성	• 타사업을 선도 여부 • 지역주민의 소득과 취업기회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	
	광역성	•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반을 형성 및 촉진 여부	
	미래성	• 민간부문의 생산성, 고부가가치화 기여 여부	
추진체계효율성	운영체계의 효율성	•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여부 • 차별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의 효율성 여부 • 개발완료 후 유지관리 방안 효율성 제고 여부	
	사업시행 역량	•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련 주체 수요 확보 여부	

구분		충남개발공사 (임대주택)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예술집적지)	송기균경제특보 (통합물류센터)	충남연구원 (다기능 콤플렉스)	비고
적 합 성	정책적 부합성	불부합	일정 부분 부합	일정 부분 부합	일정 부분 부합	
	사회적 합의성	충남 어려움 찬안 가능	충남 가능	충남 북부권 가능	충남 가능	
	입지 적합성	용도지역 변경 필요 접근성 가능성 어려움	좌동	좌동	좌동	
실 현 가 능 성	추진기반 구축	추진 가능	장기간 소요 예상	장기간 소요 예상	장기간 소요 예상	
	효율성	추진 가능	복합시설로 관련 제도 검토 및 국비확보 필요 (단계적 추진 필요)		복합시설로 관련 제도 검토 및 국비확보 필요 (단계적 추진 필요)	
	집행성	추진 가능	집중 예산 투자 필요	추진 가능	집중 예산 투자 필요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타당성 검증 선이행 추가조달 가능성 없음	추가 조달 가능성 농후		추가 조달 가능성 농후	
효 과 성	수익성	시장 수요 충분	수익사업 보완 필요	참여업체 모집 및 조직화 어려움 예상	수익사업 보완 필요	
	민감성	간접 기여	선도 가능	간접 기여	선도 가능	
	광역성	촉진 미흡	충남에 촉진 가능	북부권 상권 촉진 다소 가능	충남 전역 촉진 가능	
	미래성	불충분	고부가가치화 기여 가능	다소 가능	고부가가치화 기여 가능	
추 진 체 계 효 율 성	운영체계 효율성	충개공 시행가능	조직 별도 구성 필요	조직 별도 구성 필요	조직 별도 구성 필요	
	사업시행 역량	충개공 시행가능	협업체제 필요	협업체제 필요	협업체제 필요	